

불교 왜곡 보도 발 붙일 곳 없다

종단협의회, 상시감시기구 '방송언론윤리위원회' 6월경 발족

방송 언론의 불교관련 보도를 상시 감시하는 (가칭)불교방송언론윤리위원회(이하 방송윤리위)가 한국 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이하 종단협) 산하에 발족된다.

종단협은 3월 1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올 상반기 내로 방송윤리위를 발족하기로 했다. 종단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6월까지 방송윤리위를 발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무국에 실무준비 업무를 일임하고, 보리

방송모니터링 등 관련단체들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종단협은 방송윤리위의 예산도 3000만원 책정했다.

방송윤리위의 주요사업으로는 △ 언론 상시 감시체계 가동 △교계 모니터링 단체들과 업무공유 및 지원 △방송언론사 독려 및 홍보 △왜곡 및 선정보도에 대한 교계차원의 대책마련 및 홍보 등이 꼽히고 있다.

방송 언론에 대한 감시와 불교계 권익보호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2005년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서울의 수경사를 집중 보도함으로써 사찰의 '유아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 보도는 자의적인 해석과 과장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반론보도를 받아들였다. 보리방송모니터링과 불교대책위원회가 나서서 실상을 밝히며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 결과였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사후약방문' 격인 활동보

다는 상시적인 감시와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었다. 종단협이 방송윤리위를 운영하는 것은 '불교전체의 눈과 귀'를 여는 것이어서 활동의 폭과 효과도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신교계는 2001년 전 교단이 동참한 한국교회언론인회를 설립해 기독교 국가건설을 목표로 각종 언론매체를 기독교적 입장에서 분석한 뒤 대처하고 있다. 가톨릭의 경우도 1967년부터 주교회의에서 매스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한국불교박물관 볼 것 많네요"

한국불교박물관이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현대불교신문과 (주)제이컨텐츠 주최로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불자 연예인 남일우 김용림 부부가 해안 스님으로부터 서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사진= 박재원 기자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물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전면적인 사면·경감 당부하노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교시, '불자삼륜' 수지 당부

"종단은 화합 승가이니 과거 종단의 개혁불사 기간 중 중징계를 받은 자들도 종단 발전에 회향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면, 경감 조치를 행할

것을 당부하노라." 조계종 제12대 종정으로 재추대된 법전 스님이 3월 21일 교시를 내렸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중징계하는 평소에도 승가의 제일 덕목인 화합을 대중들에게 늘 말씀해 오셨으며, 사면에 대한 것 또한 평소 생각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법전 스님은 또 '지계청정' '건성

성불' '증생교화' 세 가지 지침을 거듭 천명하며 '불자삼륜(佛子三輪)'으로 수지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현실을 불자들은 외면하지 말고 불우한 이웃에 대한 구체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 증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중징계하의 교시는 21일 종단 지도급 스님들의 중징 재추대 수락요청과 하례를 받은 이후 내려진 것으로서, 향후 모든 종도들의 신행과 수행, 중무행정의 지침"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후원 AFS : 060-700-1080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인물經 世象鏡

3월 17일 서울 신도림동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에서 부인과 함께 도매 일을 하던 박광진(46)씨. 그는 불길과 유독가스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고 인명을 달리했다. 유독가스를 피해 8층으로 피신해 특수 유리를 발로 차 구멍을 내고 아내의 머리를 바깥으로 내밀게 해 숨을 쉬게 했지만 자신은 유독가스에 질식사 숨을 거둔 것이다.

이 '애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는 애도의 물결이 넘쳤다. 절제명령의 순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아내를 살려내고 자신은 아내 곁을 영원히 떠난 남편의 사랑이 세상을 감동시킨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부부들에게 '부부'라는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불자들은 우스개 소리로 아내

나 남편을 '전생애 진 엄청난 빛을 받으려 온 사람'이라 표현한다. 그래서 귀찮은 존재란 말인가? 착실하게 빛을 갈아야 할 사람이란 말인가? 생각 나름이겠지만 부부 보다 소중한 인연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 인연에

서 인간 세상의 모든 '생산'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이 선진화라고 착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요즘에는 '명절이혼'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실제로 명절직후 이혼 건수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 흐려지는 세상, 가정이 무너지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봄, 결혼의 계절이다. 꽃처럼 화려한 신랑신부들의 백년해로를 빌어본다. 박광진씨의 이듬으로...
 임연태 기자

아내 구하고 떠나간 박광진씨의 사랑

I Love Buddha / 수행
 용정운(www.zentoon.com)

그리고... 집중하기...
 망상의 근원을 찾아보기...
 하나하나 올라오는 생각들을 알아차리기...

불 자비원 개원 및 부처님 삼존불 점안 법회 축

부처님께 귀의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자비원이 불자님들의 성원으로 정발산동에서 덕이동으로 확장 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그간 부처님의 불법을 믿고 삼보에 귀의하신 많은 불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비원은 정법을 포교하고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원을 통해 자비원은 대중과 함께하는 도량이 될 것입니다. 개원 및 삼존불 점안 법회에 많은 불자님들께서 동참하셔서 큰스님들의 법문을 경청하시고 아울러 복된 선물도 많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 ◆ 개원법회일시 : 불기 2551(서기 2007년) 3월 31일(토) 오전 11시
- ◆ 참석 큰스님 : 속리산 달마선원장 범주 큰스님, 한국불교 정토종 종정 지산 큰스님, 서울 자비원장 화담 큰스님
- ◆ 참가문의전화 : 031)917-1515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원
 회주 도경 주지도일(세목) 합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781-12 자비원

●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하차 5분출구 나오셔서
 → 버스 150번, 151번, 9701번, 마을버스 11-2번 승차
 → 덕이초등학교앞에서 하차 도보로 5분거리